

올해 이공계 국가장학금 795억 원 지원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2005년도 이공계열 대학생 및 대학원생 1만7천 명에게 795억 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학의 이공계열 학과(부)에 입학한 자 중에서 고등학교 3개학년 수학, 과학교과목의 평균석차가 상위 20% 이내인 자로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수리 '가' 영역과 과학탐구영역 성적(수도권 1등급, 비수도권 2등급 이내)을 반영한 자격 기준에 따라 신청한 자와 수시 1학기 모집으로 입학한 학생 중 각 대학에 배정한 우수한 학생을 추천받아 3천500명을 선발하여 190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선발된 장학생은 재학기간 중 각 대학이 정하는 일정한 학업성적을 유지할 경우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이올러, 비수도권 대학의 우수 신입생 중 수능시험 수리 '가' 영역 및 과학탐구 영역에서 모두 1등급인 학생에게는 교재구입비 등으로 연 200만 원을, 2등급 이내인 학생에게는 연 100만 원을 지급하고, 수도권 소재 대학에 수능시험의 수리 '가' 영역 및 과학탐구 영역에서 모두 1등급인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학생에게도 교재구입비 등으로 연 100만 원을 지급한다.

저소득층 자녀 장학 시범사업 시행

국가가 저소득층 학생에게도 빈곤 탈출을 위한 희망경로를 제시하기 위해 고등학교에서 학비를 지원받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학생 중 이공계열 학과(부) 대학에 진학한 1천500명을 선발하여 75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재원의 장학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동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재학기간 중 학비에 대한 부담으로 중도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 지급하고, 대학내·외에서 근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대학자체의 등록금 재원에서 기숙사비 등 1인당 연 3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연계하여 계속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학장학제도의 개편 추진

현행 성적우수자 위주의 대학내의 장학금 지원 체제를 가계

곤란자 위주(현행 총지급액 대비 15% 수준에서 20%로 확대)로 전반적인 개편을 통하여 가계곤란자의 안정적인 대학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공립대학은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사립대학은 적극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설립 추진



과학기술부는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설립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에는 연세대학교 수학과 장건수 교수를 선출했다.

정부는 그동안 지식정보화시대에 있어서 과학기술과 산업의 발전에 대한 수학의 역할 증대에 부응하고 수학 인재의 열악한 연구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리과학전문연구소를 국가적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수차례와 함께 추진(05년 예산 10억원)하여 왔다.

특히, 위원회는 대한수학회뿐만 아니라 수학분야의 학계, 금융 등 관련 연구기관, 안철수연구소, 삼성 SDS를 비롯한 첨단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로 구성되어 상아탑 수준에 머물러 있던 수학의 체계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금번 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금년내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과학문화재단 나도선 이사장 취임



한국과학문화재단은 지난 3월 21일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을 지낸 나도선 박사가 21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나도선 신임이사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사이언스 코리아'를 중심으로 한 과학문화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내실화해 우리 나라의 과학문화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는 질적 도약의 시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나 신임이사장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생화학연구실장을 거쳐 울산의대 교수로 재직했으며, 임기는 3년이다.

지역 특성을 살린 테마과학관 건설 지원

- 과학기술부에서 금년 12개 시설 건립 지원 예정 -

과학기술부는 금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살려 건립하는 12개소의 테마과학관 건설을 위해 5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테마과학관은 지역의 자연환경 및 문화시설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건설하는 소규모의 과학관으로서 과학기술부에서는 1999년부터 이들 과학관의 건설을 지원하여 왔으며, 이미 대전시민천문대 등 3개 과학관이 설립되어 운영중에 있다.

금년에 지원되는 과학관은 청양칠갑산스타파크 등 천체관측을 주목적으로 하는 천문관이 9개, 의왕조류탐사과학관 등 자연 생태 및 환경과 연계한 자연과학관이 3개로서 앞으로 이들 과학관이 완공되면 일반국민들에게 과학문화시설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람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대비 과학관수는 선진국에 비해 1/8 정도 수준이다. 과학기술부에서는 지방의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건립하는 테마과학관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한·중·일 3개국, 한의학을 '東方' 의학으로 명칭통일 합의

- 전통의학 발전의 계기 발판 마련

한국, 중국, 일본 등 3개국의 전통의학 명칭이 '동방(東方)의학'으로 통일될 전망이다.

대구한의대는 "4월 18~19일 중국 국립 베이징(北京)중의약대와 일본 국립 도야마(富山)의과 약과대, 대구한의대 등 3개 대학이 대구에서 여는 국제학술대회에서 '동방의학'이란 새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3월 20일 밝혔다.

현재 3국의 전통의학 명칭은 한국의 한의학(韓醫學)을 비롯해 중국은 중의학(中醫學), 일본은 와칸(和漢)으로 표현하는 등 각각 다르다.

동방의학 가운데 '동방'의 영어 표현은 기존에 비공식적으로 사용된 'Oriental' 대신 'Eastern'으로 표기하기로 했다.

허 준 박물관 개관



허 준 박물관

동의보감(東醫寶鑑)을 집필하고 우리나라의 전통의학인 한의학을 체계화한 구암(龜岩) 허준(許浚) 선생의 숭고한 인간애와 학문적 업적을 기리기 위한 허준기념관이 3월 23일 개관했다.

서울시 강서구 가양2동 26-5에 위치한 허준기념관은 개관 후에는 추이를 보아가며 노인 및 부인을 위한 무료 치료도 계획중이라고 담당자는 말하고 있다.

(문의 : 02-3661-8686, <http://www.heojun.seoul.kr>)

정리_ 이재성 기자 jslee@kofst.or.kr